

# 혈통 등록은 왜 필요한가?

—일본 홀스타인등록협회 제공—

출하될 유량이 정하여진 계획생산에서는 유대 수입은 고정적으로 정하여지게 된다. 따라서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수익을 늘리기 위하여는 생산비를 줄이는 수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.

생산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비유능력이 우수한 젖소를 확보하여 그 소의 유전적능력을 최대한으로 나타내는 사양관리가 특히 중요하게 된다.

비유능력이 우수한 소는

- ① 암소의 능력과 체형을 정확하게 평가하고
- ② 각각의 암소에 적합한 종모우를 선정하여 교배하고
- ③ 종모우를 선택할 때 근친교배에 의한 유량 감소가 없도록 하고
- ④ 생산된 암송아지중 유용후대축으로 사용할 소는 검정과 심사의 성적으로 계속 선발하여 나감으로써 개량확보하여 나가는 것이다.

## ◇ 근친을 피하기 위하여는

근친이 되면 활력이 저하되고 유량의 감소가 나타난다. 특히 후자의 경우 근친의 정도를 나타내는 근교계수가 1% 높아지면 1유기에 유량이 약 45kg 정도 감소된다고 한다. 유대를 kg당 322원이라고 하면 부낭교배(근교계수 25%)로는 1,134kg의 산유량 감소로 인하여 유대 365,148원의 손실, 반형대교배(12.5%)시는 그의 절반인 182,574원의 손실을 가져오고 근교계수 6.25%일시는 283kg의 유량감소로 91,126원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.

근친을 피하기 위하여 등록증에 나타난 혈통

기록을 잘 확인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. 이것이 혈통등록이 필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.

## ◇ 암송아지 단계에서의 능력추정

경영을 잘하는 비결은 얼마나 우수한 후대우를 선발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있다. 암송아지와 같이 그 소의 산유능력기록이 없는 단계에서는 양친이나 조부모 등의 혈연관계에 있는 젖소의 성적을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.

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비유능력이지만 유전소질은 양친으로부터 1/2씩 물려받는다. 따라서 그 소 자체의 비유기록을 얻을 수 없는 단계에서의 판단은 양친의 기록에서 추정하게 된다. 또한 혈통등록우의 25% 전후가 초산우를 어미로 하고 있으므로 이때에는 모방조부모에서 모의 능력을 추정하고 이 추정치를 다시 사용하여 사육하고자 하는 암송아지의 능력을 추정하여 선택이나 도태이나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혈통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것이 제 2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.

## ◇ 혈통등록은 개량의 시작(Start)

혈통등록을 토대로 하여 개체확인을 실시하여 여기에 능력과 체형의 기록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비로소 정확한 평가와 판단이 가능하여지며 이에 따른 계획교배로 개량은 진행되는 것이다.

소를 사고 팔 때에는 혈통등록증이 개체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고 있다.

개량은 등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.